

Meritz 조선/기계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887.8	17.1	128,500	0.4	-0.4	-0.8	33.9	89.5	42.9	0.6	0.6	0.7	1.4
현대중공업枳주	7,174.3	21.8	440,500	0.8	4.5	10.5	15.6	5.9	50	0.8	0.7	14.1	14.7
현대엘렉트릭	1,051.2	5.1	103,000	9.7	30.9	8.1	-9.6	9.8	8.5	0.9	0.8	9.3	9.7
현대건설기계	1,866.6	8.6	189,000	4.1	8.9	12.2	11.8	12.0	8.9	13	12	11.7	13.9
삼성중공업	5,021.1	18.1	7,970	-0.3	3.8	1.8	23.2	503	24.9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894.6	4.6	27,000	4.2	-2.2	34.7	94.2	9.9	11.9	0.9	0.8	9.0	6.8
현대미포조선	2,020.0	9.9	101,000	1.0	8.0	-1.5	28.3	21.8	15.7	0.8	0.7	3.6	4.8
한진중공업	375.4	6.8	3,540	0.3	9.4	4.3	6.9	71.2	17.8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3,088.5	23.1	114,500	2.7	42.4	92.8	110.5	20.2	19.7	28	25	14.6	13.3
두산밥캣	3,248.1	26.7	32,400	-0.5	3.7	-8.2	-9.5	11.9	11.2	0.9	0.9	7.4	7.6
현대로템	3,404.3	16.3	40,050	16.6	134.2	167.0	113.6	51.7	352	23	22	4.5	6.3
하이록코리아	395.5	49.5	29,050	3.0	20.3	15.7	29.1	13.2	12.0	1.1	1.0	8.8	9.0
성광밴드	383.2	17.2	13,400	0.0	19.1	9.8	34.3	1,184.5	48.0	0.8	0.8	0.1	1.8
태광	376.3	12.9	14,200	0.0	18.8	3.3	17.8	84.8	41.4	0.9	0.9	1.0	2.1
두산중공업	2,182.5	11.2	20,500	5.7	39.0	41.4	33.6	19.3	12.4	0.7	0.7	3.9	5.5
두산인프라코어	2,362.5	14.2	11,350	4.6	28.8	9.7	30.6	8.1	7.5	1.2	1.1	15.6	15.1
두산엔진	496.2	4.0	7,140	4.1	29.8	81.2	93.8	-117.3	112.0	0.9	0.9	-0.8	0.8
한국항공우주산업	4,206.1	15.8	43,150	0.3	-8.8	-7.3	-9.1	34.9	24.0	3.4	3.1	9.7	12.9
한화테크윈	1,509.6	13.9	28,700	-1.4	6.5	3.8	-19.3	34.2	18.8	0.7	0.6	1.9	3.4
LIG넥스원	950.4	10.5	43,200	-2.0	-5.9	-11.8	-27.8	18.7	12.7	1.5	1.3	8.6	11.4
태웅	435.2	4.2	21,750	0.9	22.2	0.7	12.4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81.3	5.7	6,720	3.4	-5.9	-24.7	33.1	-49.4	70.7	21	21	-4.3	3.1
한국카본	293.2	13.6	6,670	5.2	12.1	-1.0	24.4	50.5	24.3	0.9	0.9	1.8	3.7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Diana Shipping looks ahead with optimism

벌크선사 Diana Shipping은 올해 글로벌 벌크 수요를 전년대비 2.7% 증가한 52억톤으로 전망함. 수요 증가의 주된 원인은 중국의 철광석 수입 증가임. 중국의 해상 철광석 수입량은 전년대비 5% 증가한 26억톤을 기록할 전망임. 또 일대일로 정책으로 30여개국 철강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임. (TradeWinds)

Ecochlor to fit BWTS on Angelicouassis ships

미국 BWTS(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제조사 Ecochlor은 Angelicouassis Shipping Group의 선대 36척에 BWTS를 공급할 계획임. 설치는 2018~20년간 싱가폴, 두바이, 카타르, 중국에서 진행될 계획임. 해당 BWTS는 IMO와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조건에 충족했다는 점이 수주로 이어졌다고 알려짐. (TradeWinds)

Hapag closing in on final 2020 vision, says chief executive

컨테이너선사 Hapag-Lloyd는 2020년 환경규제의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힘. LNG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 선대의 17척을 개조를 고려하며 척당 2~2.5천만달러가 소요될 전망임. 반면 스크루버는 0.7~1천만달러가 소요되나 장단점이 있음. 환경규제 3가지 대안 중 근래에 선택할 계획. (TradeWinds)

"조선 설비과잉 문제 내년 G20서 논의"

일본 무역협회 산하 Japan Ship Center(JSC)는 최근 도쿄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조선 설비과잉 문제를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기로 발표했다고 알려짐. 아래 수상은 내년 G20 회의에서 철강 및 조선업계의 설비과잉 문제를 한국 및 중국과 협의할 예정으로 밝혔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Liner sector continues to improve, but dangers lurk

선박 브로커회사 Affinity는 컨테이너선 업계의 회복 조짐이 보이나, 여전히 금과잉은 위협요인으로 분석함. 전체 선대의 1% 수준인 22.5만TEU의 선박이 유류 상태에 있고, 올해 4월 기준 컨테이너선 선복량이 전년동기 대비 5.8% 증가하면서 컨테이너선 운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South Korea diversifies LNG import sources in 2017

세계 3위 LNG 수입국 한국은 작년 중동과 동남아를 대신해 미국과 호주에서 LNG 수입을 늘림. 작년 미국에서 LNG 수입은 연간 37억CBM으로, 전년대비 1,180% 증가했고, 호주는 880만CBM으로 40% 증가함. 한국가스공사가 미국 LNG에 대해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한 만큼 향후 더 증가할 전망임. (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5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5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5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